

‘대한민국의 힘, 아줌마들의 일상탈출’

죽왕면번영회·주민자치위원회 주최 ‘2011 복고페스티벌 대한민국 아줌마 대축제’ 열려

김치나눔행사·몸빼 해변 명랑운동회 등

대한민국 아줌마로서 가정과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2011 복고 페스티벌 대한민국 아줌마 대축제’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봉수대 해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죽왕면번영회와 죽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성군과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원심층수, 금강농협 등이 후원했다.

‘대한민국의 힘, 아줌마의 일상탈출’이라는 주제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나눔, 사랑, 행복, 추억, 복고파티, 스트레스 zone 등 6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2일은 난타공연에 이어 다문화가족 김치 나눔행사, 몸빼해변 명랑운동회, 아줌마 밴드 공연, 아줌마 자유발언대, 아줌마가요제 등이 열렸다.

13일에는 7080콘서트, 아줌마 스트레스 파이팅 라운드, 나팔바지 GOGO장 씨니 댄스 페스티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고성군 청정바다 수심 605m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파종단계부터 수확단계까지 길러낸 신선한 해양심층수 고랭지배추를 가지고 해양심



‘2011 복고 페스티벌 대한민국 아줌마 대축제’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봉수대 해변에서 열렸다.

층수로 절여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동해바다 계절 생선

구이 한미당, 해양심층수 두부 만들기 체험장, 고성해양심층수 홍보관, 고성군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등이 선보였다. 백옥식 시민기자

“몰랐던 지역 역사·문화 많이 배웠어요”

현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역사문화체험교실’ 종료

현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실시한 역사문화체험교실이 지난 5일 ‘고성산 수타사지와 관대암’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내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 역사문화체험교실을 통해 열린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고성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적지 및 감춰진 명소를 탐방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은 천학정 숨은그림 찾기, 기암괴석능파대, 명사해변과 금구도성지의 유래, 600년 전통의 씨족부락, 사라진 지역 역사를 찾아서, 고성산 수타사지와 관대암 등이다.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역사문화체험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추억을 만들



지난 5일 진행된 고성산 수타사지와 관대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수타사지 5층 석탑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보는 시간을 제공했다”며 “무료 광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강사로 활동해준 향토사학자 김 다. 최광호 기자

설악산 대청봉 올해 첫눈

지난 9일 오전 ... 진눈개비 1cm 가량 쌓여

지난 9일 설악산에 올 들어 첫 눈이 내렸다. 속초기상대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부터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 일대에 밤새 내리던 안개비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진눈개비로 변해 1cm 가량 쌓였다.

이날 설악산 중청봉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0.1℃였다. 올해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10월 31일)보다 9일 가량 늦게 내렸다.

최근 10년간 설악산의 가장 빠른 첫 눈은 10월 14일(2003, 2007년)이었으며, 가장 늦은 첫 눈은 11월 5일(2001년)이었다. 최광호 기자

속초소방서 불조심 우수작품 전시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 7일부터 11월 한달간 소방서 2층 복도에서 불조심 그림 작품 64점을 전시한다. 15일부터는 설악관 3개 지역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이동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지난달 속초, 고성, 양양 3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조심 그림 작품을 공모해 25개교에서 1,023점의 작품을 접수한 뒤 우수작품 64점을 선정한 것이다. 최광호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